

〈사조선록 역주 2: 명사의 조선 사행록 1〉

해제

예겸, 〈봉사조선창화집〉, 〈조선기사〉, 〈요해편〉

- 예겸의 사행:
 - 예겸 (1415~1479): 사행 당시 35세, 한림원 시강 - 후에 한림학사, 남경예부상서, 소종백
 - 사행 일정: 1450년 (명 경제 景泰 원년, 조선 세종 32년)
 - 1449.12.13. 북경 출발 - 1450.1.9. 요양 도착 - 1.10. 요양 출발 - 1.17. 압록강 도강
 - 윤1.1. 한양 도착 - 윤1.20. 한양 출발 - 2.3. 압록강을 다시 건너 귀국
 - 사행 목적: 명 경제의 즉위를 알림
- 〈봉사조선창화집〉
 - 예겸(17수)이 여로에 지은 詩賦와 원접사 정인지(7수)·신숙주(6수)·성삼문(6수) 등과 함께 창화한 시문을 간추려 엮음
 - 본 책에 실린 것은 1910년 나진옥 편 〈옥간재총서〉 본
- 〈조선기사〉
 - 1450.1.1. 요동 출발부터 2.3. 압록강을 다시 건너 귀국하기까지의 여정을 일기체로 기록
 - 〈옥간재총서〉 본
- 〈요해편〉
 - 1469년 각본: 예겸이 관직을 그만두고 집에 있었을 때, 사행 여로에 지었던 시부, 기행문, 지인에게 받은 시문 등을 그 아들 예약이 모아 편집,출간
 - 출간 직후 조선에도 유입: 신숙주의 〈보한재집〉 (1487), 서거정의 〈필원잡기〉 (1487)에 등장 - 1999년 인사동 고서점에서 발견
 - 1권: 사행 여로에 관한 기행시
 - 2권: 한성 도착 후부터 귀국길까지에 관한 시, 조선 관원들과의 창화시 포함
 - 3권: 〈조선기사〉
 - 4권:
 - 〈중조증언〉: 한림원 동료 등 명나라 중앙정부의 관리들이 환송하며 써준 시
 - 〈요양증언〉: 요동의 관원들이 쓴 시
 - 〈조선영별〉: 조선 관원들이 송별하며 써준 시
 - 〈봉사조선창화집〉과 〈조선기사〉의 대부분이 〈요해편〉에 수록 (*아래 표 참조)
- 〈요해편〉 등의 중요성
 - 正使가 직접 기술한 중국 최초의 기행시문: 사신의 임무인 咨詢과 復命을 의식하여 작성
 - 서울과 북경을 잇는 육로 사행 경로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처음으로 남긴 기행시문
 - 문학지사 출신으로 조선에 처음 출사한 명조 사신의 여행 기록: 조명시대 처음으로 일류 문학지사 출신의 한림원 시신(侍臣)이 정사로 선발되어 파견됨 (예겸 이후로 관행화)
 - 한국의 방문한 중국 사신과 한국 접반사가 나누는 창화시의 최초 사례

- ‘창화(倡和) 외교’: ‘앞에서 선창하면 뒤에서 호응한다.’ 한쪽이 시를 지으면 상대방이 운을 맞추어 화답 시를 지음
- 예겸 이후로 명청 사신과 조선 접반 사이에 창화(+출판)의 관행이 일반화, 문학적 역량을 겨루며 同文 의식을 나누고 외교적 현안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도 활용됨
-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명대 중국 지식인의 인식이 표현됨 (신선이 사는 요원한 별천지, 중국과 엄연히 다른 외국 + 기자가 책봉을 받은, 역사와 문화, 詩書禮樂을 공유하는 나라, 책봉-조공의 예를 성실하게 나누는 가장 친밀한 번국)

* <사조선록 역주 2>의 <봉사조선창화집>, <조선기사>, <요해편> 텍스트 비교

	pp.		pp.	
〈봉사조선창화집〉	15-28	=	190-203	〈요해편〉 2권
	28-42		175-190	
	43-49		203-210	
	59-53		229-232	
	53-57		243-247	
	57-63		247-253	
〈조선기사〉	64-91		265-290 (전체)	〈요해편〉 3권

(판본에 따라 글자가 다른 경우 역자가 각주에 차이점을 명시)

예겸, <요해편> 中

pp.92-223

제1권 pp.92-175

노옹(盧雍)의 서문

“그 나라 군주와 신료들과 禮文에 관해 사리를 밝혀 논하고, 변화와 형편에 맞추어 적절하게 대응하면서 조정의 은혜와 덕택을 널리 퍼서 알렸으며, 그 여악을 물리쳐서 OO을 보여주니, 그 나라의 군주와 신료들이 믿고 따르며 감동하여 기뻐하였고, 마치 신명을 대하는 것 같이 공경하고 흠모하였다.”

“그 나라 사람들 가운데에는 붓을 놀려 면전에서 방자하게 자랑하고 뽐내는 자가 있었다. 이에 공이 그 빼어난 재주를 펼쳐 … 온 나라가 비로소 모두 놀라고 감탄하여 가없이 우러러보며 …”

“공은 조정을 받들어 外夷를 복속시키는 데 뜻을 두어, 군주의 명령을 욕되게 하지 않았다. 따라서 여러 작품에서는 크고 바른 기운이 널리 드러나 있고, 그 글은 성대하고 넉넉하다.”

“공이 사신의 직무를 능히 감당해서 나라의 빛이 되었으니 참으로 끝내 없어지게 해서는 안 된다고 탄식하고, 마침내 봉급을 털어서 공인을 시켜 그 완성을 돕게 하고, 그 대강의 줄거리를 머리 부분에 써 둔다.”

1. 요동 여정

- 북방을 여행하면서 본 풍경, 구체적인 사건들을 시로 표현
- 고요하고 황량한 심상, 계절감: 흙집, 무너진 다리, 민둥산, 추위, 새벽과 해질녘의 풍경, 차가운 밭, 작은 마을, 고목, 외딴 성 등
- 험준한 자연 풍경: “산기슭 휘감는 구불구불 돌계단이 수레 가는 길 더디게 한다.” “산세가 구름 속에 들어가” “연이어진 산봉우리” “높고 낮은 길이 모두 험준해서” “사방의 산들이 담장처럼”
- 중원이 요동을 평정한 역사, 황제의 권위와 사신로서의 임무를 상기함

觀宴群胡 (연회를 구경하는 胡인의 무리)

“일찍이 주 선왕이 험운을 몰아낸 일 이야기하고, 다시 한 무제가 흉노를 제압한 일도 들었다. / 황제의 어진 덕택 밖에까지 미쳐져서 모두가 귀화하니, 오래 전부터 변국을 자칭하며 제도를 장대하게 여긴다.”

道傍土屋 (길가의 토옥)

“띠를 엮고 흙 바른 지 여러 해가 되었고, 평평한 지붕에 기와는 전혀 쓰지 않았다. / 예로부터 북쪽 땅 백성의 기풍은 두터우니, 토굴 거쳐 둥근 것이 태고의 전대와 비슷하다.”

曉發豐閭十首 (새벽에 풍운을 출발해서 칠가령역에 다다라, 사마공과 함께 구슬을 켤다, 10首)

“봉래가 삼한의 밖에 있다 말하지 마라, 벌써 몸이 날아 낭영에 있음이 느껴진다.”¹

“태평시절이라 문에 경비가 없고, 지나가는 산가에서도 개가 짖지 않는다.”

¹ 봉래, 낭영, 영주 모두 신선이 사는 곳으로 알려진 전설적 공간

晚至前屯衛 (해질 무렵 전둔위에 다다르다)

“언제나 호로를 멀해서, 우리 위해 봉화대 없앨 수 있다.”

曉發東關驛 (새벽에 동관역을 출발하며)

“깃발이 앞 언덕에서 머무르고, 멀리서 마중나온 군대가 시야에 들어온다. / 음산한 구름이 한낮에 해를 가리고, 암담한 바다 빛이 어둑하다. / 긴 바람이 동남에서 불어오니, 살을 에듯 매서운 추위의 기세가 두려워할 만하다. / 못 산들이 큰 파도 속에서 드러나고, 옥 같은 눈이 이내 낀 산에 스며든다. / 우뚝 높이 솟은 산은 푸른 용의 꼬리고, 높이 튀어나온 언덕은 금빛 자라의 등이다. / 고래 물결 잠잠해져 놀라지 않으니, 성주께서 보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赴連山 (연산으로 가며)

“멀리 홍라산을 바라보았더니, 홍라현이 있었다고 말한다. ‘요, 금과 호원이, 땅을 탐내 날마다 전쟁했다. / 성황께서 덕을 넓히시는 데 힘쓰셔서, 부지런히 안을 다스려서 게을리하지 않으셨다. / 하늘과 땅이 고르게 덮이고 실렸으며, 강과 바다가 절로 맑고 편안해졌다.’”

塔山李將軍逐戰歌 (탑산에서 이 장군이 종군한 일을 노래함)

바로 직전인 1449년 12월 27일 호인이 침략해 탑산까지 들어왔으나 李榮 장군이 무찌른 일을 기록

遼河道中四首 (요하 가는 길에 4수)

당 태종이 고구려 정벌할 때 진창이 많아 고생했던 일

曉發遼陽聯句 (새벽에 요양을 출발하며 지은 연구)

“새벽녘에 멀리 떨어진 華夷의 길 다시 오르니, 널리 皇恩 퍼서 알리는 일 우리에게 맡겨졌다.”

登高嶺 (고령을 오르며)

“황명을 띠고 다른 나라 가는데, 이만한 고생이야 어찌 사양하겠나.”

2. 압록강 도강 이후

- 압록강을 건너는 순간부터 의순관-차연관-임반관-운흥관 등 사신의 객사/빈관을 거점으로 이동하며, 매 거처에서 의례, 연회가 이루어짐
- 조선의 사신 대접에 대한 긍정적 평가, 중국 사신으로서 예겸의 태도
- 요동에서는 중원왕조가 만주지역 유목민족들과 어떻게 다투고 평정했는지를 상기 - 압록강을 건너 한반도의 북부에서는 ‘외국’임을 실감하면서도 ‘고대부터 중국의 관할지였던 곳’으로 생각

過鴨綠江 (압록강을 건너며)

“잘 가는 東國 말은 씩씩하기도 하고, 먼 나라 사람들은 정중하게 맞을 줄 안다. / 夷와 夏가 다른 영역으로 나뉘지만, 푸른 산은 옛적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다.”

至義州義順館 (의주 의순관에 다다르다)

“번왕이 천리 먼 곳에서 천자 조서 맞기 위해, 특별히 연로한 민조판서 보내었다. / ... 북도 아래에서 큰 소리로 말하는데 음성은 비록 달라도, 섬돌 아래에서 계상하며 예의에 소홀함 없다. / 화관에서 주연 열렸는데 해물이 많아, 질그릇 쟁반에서 구리 젓가락으로 빙어 집는다.”

曉發義順 (새벽에 의순을 출발하며)

“말 앞의 주리² 말 쓰는 사람, 음성이 달라서 불러도 듣지 못한다.”

曉發良策 (새벽에 양책을 출발하며)

“조선은 물산이 많지 않아서, 방한 용구 마련하기 어렵고도 힘들다. / 다리에는 황마로 만든 짚신을 신고, 몸에는 흰색 모시와 갓옷 입는다. / 바다와 산은 어디서나 끊어지지 않고, 관로는 새로 만들기를 좋아한다. / 앞에는 인도하는 夷兵이 가득하고, 깃대에는 깃발이 충충히 매여져 있다.”

宿林畔館 (임반관에서 묵으며)

“공관에서 열리는 주연은 곳곳이 다 같은데, 쟁반 열 개에 담긴 밀판이 영롱함을 다룬다. / 채색 비단 꽃과 금빛 공작이 지붕보다 높아지고, 갖가지 해산물과 산나물이 밥상에 가득 풍성하다.”

赴新安館 (신안관으로 가며)

“멀리서 천자 조서 떠받들고 해동에 퍼려 오니, 행로에 지나는 산과 고을이 몇 천이나 되는지. / 정중하고 친절하 여려 郡의 책임자들, 석대 가에서 국궁³하며 마중 나왔다.”

過嘉平館 (가평관을 지나며)

“군사가 조정의 명령 존경하여, 조서에 절하며 여러 번 머리 조아린다. / 나를 만류하며 식사 한 끼 받들고, 술자리 펴서 몇 차례 술을 돌린다.”

安興館上却女樂 (안흥관 주석에서 여악을 물리치다)

“안흥 공관에서 성대하게 주연을 차렸는데, 구름 같이 쪽진 머리에 무지개 같은 옷을 입고 관현악기 늘어놓는다. / 부녀자가 활 쏘는 모습에 재기와 맵시 있어, 달궁의 꿈도 없이 미인을 연모한다. / 바람 불어 메마른 자갈밭에 비 흠부리고, 강렬한 햇볕 내리쬐어 낙수 물가 밝게 연다. / 아름다운 비파 소리 화려해서 귀와 눈을 더럽히니, 이 마음 넓고도 굳다고 스스로 자부한다.”

至平壤府 (평양부에 다다르다)

“평양은 한대의 현도군”

“조서를 받들고 근교에 다다르니, 멀리서 마중 나온 이들이 북 치며 풍악 울린다. / 용정을 황색 일산으로 덮고 대오의 병장기는 높이 올려 잡는다. / 길에는 갖가지 놀이가 벌어지고, 거꾸로 서며 서로 힘을 겨룬다. / 채색된 수레가 앞을 향해 인도하는데, 흔들리어 나부끼며 다투어 기뻐하고 용약한다. / 그 외에 크게 쓴 글자가 있고, 깃발이 그리 높지 않은 공중에 우뚝 솟았다.”

“영인들이 노래와 춤을 경쟁하고, 시끄럽게 부르는 소리가 드넓은 하늘 울린다. / 억만을 헤아리는 남정네와 부녀자들, 쫓아 나와 보면서 웃기도 하고 놀라기도 한다. / 이 사람은 누구인가 그저 한 번 물어보았더니, 관찰사인 한확이라 한다. / 말에서 내려 객관 문안으로 들어가, 요막에 관대 차린 이들 모은다. / 두번씩 절하고 이마를 조아리니, 예의가 흔쾌하고 모두 법도가 있다. / 사신으로 출국하며 육보이지 않겠다고 기약했지만, 현혹시키고 말 꾸미는 것도 내 즐기는 바가 아니다. / 단지 해동의 모퉁이가, 언제나 두텁게 皇恩 입게 할 뿐이다.”

宴大同館 (대동관의 연회에서)

“대모⁴ 술자리 펼쳐진 곳, 화려한 당상에 예의가 성대하다. / 관대가 모두 모여 밝게 빛나니, 여기가 동

² 華夷의 말

³ 존경을 표하며 몸을 굽힘

⁴ 화려하게 차려진 술자리/연회

이인지 잠시 잊었다.”

至開城府 (개성부에 다다르다)

“개성은 예전에 왕읍이었는데, 인구가 자못 많고 물자도 풍성하다. / 가로로 세로로 벽돌이 깔려 있고, 우뚝 솟은 산들이 겹겹이 담장처럼 에워쌌다. / 수만 가계가 비늘처럼 차례대로 늘어섰고, 수천 문들이 빗살 같이 가지런히 열렸다. / 詔命이 그 경역에 크게 이르자, 우위가 구름처럼 진을 친다. / 노인과 아이들이 길 양편에서 구경하고, 남정네와 부녀자들 땅에 웅크리고 앉아있다. / 깃발들이 멀리까지 이어져, 엮럽하게 바람에 나부낀다. / 만 리 먼 곳 삼한에 사신으로 와서, 성주의 은혜를 널리 편다. / 신료들이 모두 공손하게 따르니, 조정을 존중함이 더욱 엿보인다.”

開城席上却女樂 (개성의 주석에서 여악을 물리치다)

“조선이 예의를 지키며 조정을 공경해서, 멀리서 어진 사위 시켜 연회 열어 맞이한다. / 비상하는 오색난 새가 술자리 위에서 날아오르고, 날아오르는 제비 한 마리가 손바닥 안에서 가볍다. / 양성과 하채⁵는 미혹시키는 데 뛰어나도, 저녁 비와 아침 구름은 자신의 가는 길을 굽히게 한다. / 봄바람에 꽃 모두 떨어지는 것이 아쉬운데, 등불 켜서 등잔 전하니 청량한 기운 남아있다.”

渡臨津江二首 (임진강을 건너며, 2수)

“東君이 손님을 사랑해서 좋은 것 많이 보내줘서, 함께 푸른 산 마주보며 술 사발을 띄운다.”

제2권 中 pp.175-223

謁成均館宣聖廟 (성균관 선성묘를 알현하며)

“새벽에 성균관 가서 묘당을 배알하니, 행단이 질푸른 산 남쪽에 널찍하게 탁 트였다. / 팔조의 가르침 베푼 기자를 생각하고, 만세의 유종이신 소왕을 추앙한다. / 단아한 선비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리 잡고, 푸른 옷 입은 유생들이 기꺼이 열 지었다. / 문풍이 어찌 동해에만 미치겠나, 거룩한 덕화가 지금은 팔황에 두루 미친다.”

예겸, 정인지의 첫 답시에 대하여: “바다 밖에서 군 같은 이 정말 탐낼 만하니, 문화가 저 먼 황복에도 미쳐졌음을 비로소 알게 되었다.”

- 주석: “처음 謁廟詩를 지은 것은 본래 그들이 夷人임에도 문학을 숭상하는 것이 가상했기 때 문인데, 뜻밖에도 공조⁶가 그 자리에서 화답하는 시를 읊조려, 깔보고 뽐내는 뜻이 있는 것 같아, 화답한 것을 따라서 돌려주었다.”

정인지: “황화⁷를 수행하여 한 마루에 있으니, 연산의 그림자가 한수의 북안에 이어진다.” “外荒에 온 기재를 볼 수 있게 되었다.”

예겸: “大荒에서 만난 응재가 도리어 더 탐이 난다.”

정인지: “고루한 자가 가르침을 따르고 받들기 원하니, 황화께서는 마음속으로 벌써 황복을 감싸안았다.”

예겸: “하늘과 땅이 재목 낱을 때는 기가 다르지 않는 법, 어찌 기전과 요황⁸의 구별을 노할 수 있나.”

⁵ 귀족이나 미인이 많이 산 것으로 알려진 춘추시대 초나라의 고을 이름

⁶ 공조판서 정인지

⁷ 중국의 사신

⁸ 기전=왕기+전복; 요황=요복+황복

정인지, 신숙주, 성삼문의 창화시

雪霽登樓賦 (눈이 그쳐 누각에 올라 지은 시)

▪ <봉사조선창화집>에서는 권두에 실림

“거룩한 황상께서 제위에 계시면서, 정삭을 팔황에 반포하셨다. / 東藩이 국가를 유지하도록 돌보아 주시니, 옷 띠를 경계로 서로 바라보게 되었다. / 충성과 예의를 꼭진히 다하고, 때맞추어 공물 바치고 입조하였다. / 마땅히 특별히 우대하여 하사품을 더해주시고, 구중 궁궐에서 조서 내려주셨다.”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

“삼한의 훌륭한 경치 장하게 여기고, 만고의 그윽한 정취와 시원하게 소통한다.”

“이를 모두 감탄하며 흥미하다 보니, 자신이 九夷에 있다는 사실조차 잊게 되었다. / [사마] 선생은 나를 돌아보며 웃으면서 말하기를, ‘그대는 이 경치 감상일랑 그만두고, 이 눈이 어디서 오는지 알아봐야 할 것이다. 실로 풍년의 좋은 징조는 上天께서 밝게 내려주시고, 거룩한 황제의 덕이 음양과 합치되어, … 기봉⁹이 편안하고 풍족하게 된 것이 어찌 우리 황상의 두터운 은혜 덕분이 아니겠는가.’”

“넘치는 덕택이 옥경에서 점차 미쳐졌으니, 화려한 낙토는 인구와 물산이 크게 번성하였다. / 번국을 자칭한 동북이 태평을 떠맡으니, 봄가을 천번 만번 바뀌도록 황명의 기동 신하 굳게 되리라.”

신숙주의 답시:

“새 천자께서 즉위하여 은혜를 내외에 널리 베푸시니, 이에 한림학사 예선생께서 조칙을 받들고 폐방에 이르렀으니”

“날마다 모시고 마음껏 다니며 구경하면서, 빨리 가는 성대한 거동을 우러러본다.”

“선생이 안 계시면 내 누구에게 마음 쏠래 기울어지나, 내 마치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친구와 같다.”

“문자와 수레바퀴 함께 해서 한 동산에 오래 있으니, 우리 거룩한 천자의 크나큰 은혜로다.”

신숙주와 성삼문이 선물한 칼에 관한 화답시 및 창화시

안평대군, 이계전, 신숙주, 성삼문을 위해 지은 시

漢江遊記 (한강유람기)

한강루 연회: “공조판서 정인지와 한성부윤 김하가 나와 황문 사마선생에게 가서 놀자고 청했다. … 국왕이 미리 좌부승지 이계전과 예조판서 허후를 보내 연회를 차려놓았다. 서로 맞이해서 누각에 올라 난간에 기대어 강과 산의 절경을 마음껏 구경했다. 다 본 다음에 안석과 자리에 앉으니, 도감이 화편을 미리 만들고 기다렸다가 꿇어앉아 바쳤다. 앞으로 가져오게 해서, 시를 누각에 남겼다.”

이틀 뒤 양화도: “국왕이 미리 도승지 이사철과 병조판서 민신을 보내 임시 장막을 치고 길 왼편에서 맞이했다.”

희우정: “국왕이 벌써 술을 보내 와서, 다시 주연이 열렸다.”

“아, 무릇 땅이란 삶으로 인해 풍부하게 되는 것이니, 이런 까닭에 산음의 난정은 우군이 없었다면 숲이 무성하고 대나무가 길게 자란 곳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황주의 적벽도 동파가 없었다면 높은 산과 큰 강이 있는 곳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어떻게 그 명성을 후세에 남길 수 있었겠는가. … 내가 붓으로 기록해서 잊지 않게 해서, 때때로 한번씩 펼쳐놓고 보면, 만나는 즐거움이 흡사 언제나 눈 안에 있는 것 같이 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산에 오르고 강을 보며 그 풍토를 기록하는 것도 사신의 당연한 직무이니, 다만 연회나 유람에 마음을 다한다고 생각한다면 나를 아는 것이 아니다.”

⁹ 기자가 책봉을 받은 곳